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자신의 얼음 사업을 현대화하고 다른 도시에까지 판매를 확장하기 위해 마콘도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야겠다고 생각한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말했다. “우리는 마콘도로 철도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마콘도 사람들이 ‘철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도 이때였다.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는 달력을 검토하고는 다음 수요일에 마콘도를 떠났다. 두 번째 겨울이 돌아온 어느 날 무시무시한 반향을 일으키며 기적이 울리고 이상한 혈떡임이 온 마을을 진동시켰다. 기적소리를 듣고 온통 길로 쏟아져 나온 마콘도 주민들은 기차 위에서 손을 흔드는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와 처음으로 이 마을에 도착한 온갖 꽃으로 장식된 기차를 낮을 잃고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 스스로 건설하고 함께 가꾸어 간 평화로운 이 마을에 불안과 안도를, 기쁨과 불행을, 변화와 재난, 그리고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다 줄 무심한 노란 기차를.

이후 너무나도 많은 신기한 발명품들을 맞게 된 마콘도 사람들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밤을 새우며 하얀 전구를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 - 이것은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두 번째의 기차여행 때 가져온 것이었다 - 의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들은 돈 많은 상인 브루노 크레스피가 만든, 사자 입 모양 대표소가 있는 극장에서 틀어 주는 생생한 영화를 보고 나서 모두들 격노했다. 한 영화에서 죽어서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까지 흘려주었던 인물이 다음 영화에서 아랍인으로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2 센타보의 돈을 내고 기꺼이 주인공들의 운명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던 관객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기에 화가 치밀어 극장의 의자를 부딪 버렸다. 브루노 크레스피의 재촉으로 마콘도 시장은 공지문을 내어 영화란 관객이 감정적 소요로 떠들어댈 것이 없는 환각의 조작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그들은 대대적인 사기에 걸려 들었다면서 다시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때는 악사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주점 거리의 축음기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가게로 손님을 더 끌려는 호객꾼들의 의도대로 처음에는 축음기에 대한 호기심에 끌려 그 유희가로 들어가는 손님의 수가 몇 배나 늘어났고, 그 신기한 물건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막일꾼처럼 변장을 하고 와서 구경하는 양갓집 부녀자도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얻은 결론은 그것이 마법의 맷돌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며 자신들의 삶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악사들의 연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뒤에 축음기가 보급되어 집집마다 한 대씩 가지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뜯어보고 노는 데에나 적당한 장난감 같은 물건이라고 여겼다.

제시문 (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문화의 여러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문화의 여러 부분들도 변화하게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화의 다양한 부분들은 상호 의존적이기에, 한 부문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문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변화의 속도가 문화 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지체가 일어나며, 이러한 지체, 즉 부적응은 가능한 빨리 줄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주장을 좀 더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구성원은 물질문화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물질문화란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인위적으로 발명해낸 물리적인 것들로 주택, 공장, 기계, 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이러한 물질문화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관습, 믿음, 풍속, 의례, 철학, 법체계 등의 비물질문화 부문도 필요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물질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비물질문화도 함께 변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비물질문화의 변화 속도가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지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사회는 이해가 다른 여러 종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한 사회의 특정 집단만 원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연히 지체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를 보상하는 법은 산업 재해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찍 통과될 것이다. 또한 사회가 비물질문화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규범, 전통적 가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관습이나 규범, 가치들은 오랜 기간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온 것으로 습관이나 사회적 압력, 과거에 대한 애착 등의 이유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보다는 연장자들이 더 소중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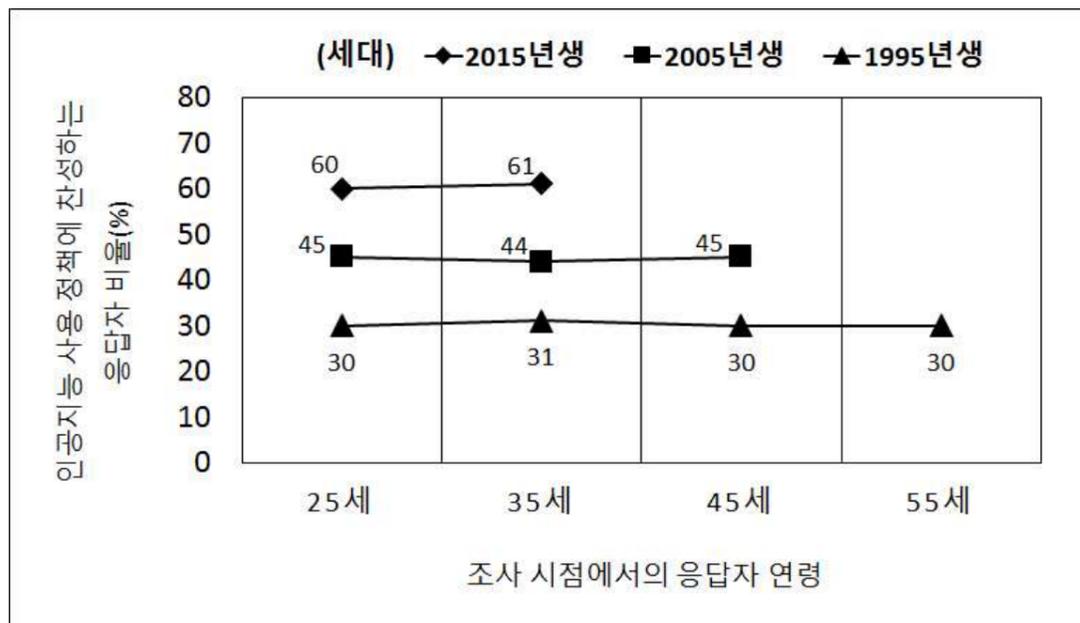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한 살아 있는 문화를 이미 상실해 버렸다. 민요, 민속춤, 의례와 같은 문화유산들은 그 외형적인 모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은 질서 있고 모범적인 삶의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그 속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자연 환경이나 절기의 규칙적인 변화에 공감하고 적응하며 쌓아 온 경험과 사회적인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기계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인간의 삶은 자연의 리듬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파괴라고 해야 할 이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동력은 기술공학이었다. 기계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기존의 삶의 방식을 파괴했다. 기계가 생활을 지배하면서 사회는 항상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너무 빨리,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며 삶의 방식을 이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기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익, 즉 대량 생산은 결국 표준화와 삶의 수준 저하를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속에서 유지되던 생생한 삶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창조적인 문화유산은 잊혀지며, 인간의 능동적 대응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류의 유산은 상실되고 문화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현대 기계문명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선의나 가치의 기준을 단순화하고 축소시킨다. 창조적인 지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항하여 공동체의 문화를 지켜 왔다. 과거에 있었던 최선의 인간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문화전통을 유지해 왔다. 한 시대를 살아가며 필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몫이다. 따라서 대안은 교육이다. 공동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만 양질의 교육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교육은 양질의 삶을 길러낸다.

제시문 (라)

국가 A에서 2020년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같은 전문직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하였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은 도입 이후 이 정책에 대한 30년 동안의 찬성률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2015년생 응답자는 25세가 되던 해에는 60%가, 35세가 되던 해에는 61%가 이 정책에 찬성하였다. (* 해당 정책 실시 이후 국가 A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문제 1>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문화’와 ‘문화변동’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각 관점에 근거해서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마콘도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국가 A의 인공지능 사용 정책에 대한 찬성률 추이와 그 원인을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